

진도군, 골목경제 활성화

아리단길 등 '청년 점포 챌린지 숭' 3곳 추가 개장 진도대과·울금·검정쌀 활용해 다양한 음식 판매



진도군이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해 '청년 점포 챌린지 숭' 3곳을 추가로 개장해 운영을 시작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해 7월 솔비치 호텔&리조트 진도 개장으로 급증하는 관광객 수요에 맞춰 진도읍 원도심인 아리단길 등 골목 상권의 특색 있는 음식과 체험거리

를 집중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청년 점포 챌린지 숭'을 개장했다.

지난해 개업한 챌린지 숭은 진도 대표 특산품을 활용한 음식점 3개소와 캘리 공방 1개소 등 총 4개소이다.

올해 추가로 개소한 3개소는 진도의 특산물인 진도대과, 울금, 검정쌀을

활용해 진도대과빵, 울금빵, 검정쌀단호박빵, 진도대과국 등을 판매하고 있다.

군은 지난해부터 창업에 필요한 창업절차 등의 기본교육, 청년 상인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컨설팅, 공동 마케팅 홍보 지원 등을 통해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고 있다.

청년 점포 챌린지 숭을 방문한 관광객들은 "진도의 특산품을 이용한 진도대과빵과 대과국 등 다양한 음식들을 맛볼 수 있어 무척 좋았다"며 "청년들이 자기 고장의 특산물을 이용해 음식을 개발하는 게 쉽지 않은데 도전하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다"고 말했다.

진도군 경제마케팅과 관계자는 "청년점포 챌린지 숭 운영으로 진도의 중심상권인 진도읍 남문로 아리단길 상가에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며 "진도의 건강한 먹거리를 이용한 음식 개발 판매로 많은 관광객과 군민들이 찾아오는 또 하나의 대표 골목 상권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진도=조상용기자

강진산 쌀귀리 웰빙식품으로 '각광'

국수·고추장·선식·음료 등 다양한 가공식품 재탄생



강진산 쌀귀리가 웰빙 건강식품으로 인기몰이 중이다. 강진군은 청정 환경과 풍부한 일조량으로 쌀귀리 재배의 최적지로 널리 알려져 있다.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자료에 따르면 쌀귀리는 단백질, 칼슘, 필수아미노산 함량이 풍부하다.

또한, 수용성 식이섬유의 일종인 베타글루칸 함량이 높아 2002년 미국의 뉴욕타임즈 선정 세계 10대 슈퍼푸드에 선정됐다. 무엇보다 식이섬유가 풍부해 다이어트와 변비에 좋고, 심혈관 질병 예방

에 도움이 된다. 탈모 예방, 피부미용에도 효과적이다.

강진군에서는 지난 7월부터 용역을 통해 쌀귀리 국수 개발에 매진해 쌀귀리 국수 생면과 건면을 생산하고 있다. 쌀귀리 잔치국수·비빔국수·파스타 등으로 요리를 만들어 10월 26일에는 쌀귀리 가공식품 시식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군은 앞으로 강진군을 방문하는 관광객과 전국 시식단을 대상으로 시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현재 쌀귀리 국수는 강진군과의 지속적인 연구 개발을 통해 국내 한 음식점에서 쌀귀리 국수 메뉴를 추가해 판매 중이다. 판매되고 있는 쌀귀리 국수는 1인분에 7천 원으로 비교적 가격이 저렴하고, 강진군에서만 맛볼 수 있는 웰빙식품으로 호평을 받고 있다.

강진=김영일기자

해남군, 내년 국산밀

교육컨설팅 전국 최다

해남군이 농림축산식품부 2021년도 국산밀 생산단지 교육컨설팅사업 공모 결과 전국에서 가장 많은 6개소가 선정됐다.

국산밀 교육컨설팅사업은 고품질 우리밀 생산을 위해 생산단지를 조성하고 밀 순도관리, 토양분석, 저장관리 등 농가 교육 및 컨설팅을 지원하게 된다. 또한 생산단지에서 재배된 우리밀은 정미비축수매 대상으로 우선 선정된다.

전국에서 38개소가 선정된 가운데 해남군은 전국 최다 선정돼 사업비 1억 9,000만원을 확보했다.

향후 교육·컨설팅 사업이 완료되면 노동력 절감에 필요한 장비와 농산물 품위 유지를 위한 저장시설 사업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이번 사업을 통해 국산밀 생산기반 확대를 위한 초석을 마련한 것은 물론 밀 산업 육성을 통한 우리밀 자급률 제고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기동취재본부

강진군·강진군농협, 마을 방범 CCTV 전 마을 설치

1억9천2백만원 예산 확보...군민 안전·쾌적한 환경조성



강진군과 농협중앙회강진군지부(지부장 강대형)가 지난 11일 협력 사업을 통해 관내 모든 마을에 CCTV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군과 강진군농협이 한마음 한뜻으로 추진한 이번 사업은 범죄 사각지대 없는 안전한 강진을 만들자는

취지에서 출발했다. 1억9천2백만원(군 1억2천만 원, 강진군농협 7천2백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CCTV가 설치돼 있지 않은 마을에 빠짐없이 CCTV를 설치했다.

관내 모든 마을을 직접 방문해 사전 상담 및 설치 희망 장소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으며 설치의사를 표시한 89개 마을에 153대의 CCTV 설치를 완료했다. 이로써 강진 관내 293개 마을 전체에 CCTV 설치가 완료됐다.

정종대 강진읍 기동마을 이장은 "CCTV 설치로 마을의 치안 향상과 농산물 도난 예방, 쓰레기 불법 투기 근절 등 생활 환경이 눈에 띄게 좋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승욱 강진군수는 "강진군과 강진군농협이 협력해 추진한 CCTV 설치 사업이 군민의 안전과 쾌적한 지역 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군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강진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진=김영일기자

장흥 용산면, '함께 생각하는' 이장단 회의 개최

일방 전달 벗어나 자유 토론

장흥군 용산면(면장 이시영)은 지난 13일 면 회의실에서 '함께 생각하는' 이장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적십자 회비 모금 유공 이장에 대한 표창, 장흥군 역점·전략

사업 등 군정 현안 사업 설명, 팀별 주요 협조사항 전달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지난 9월부터 새롭게 추진중인 '함께 생각해 봅시다'를 통해 기존의 군정 협조사항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회의 형태를 벗어나, 함께 생각해 볼 주제를 제시하고 자유로운 토론

을 통해 상호식 발전방향을 수립하는 시간으로 이뤄졌다.

회의에서는 용산면 내 숨은 명소 찾기, 주민소득 향상을 위한 소득작물 재배 확대 방안, 주민자치 신규 프로그램 발굴 등 다양한 주제로 열린 토론이 진행됐다.

기동취재본부

완도 소안감귤 GAP 인증 획득...명품화사업 탄력

유기물 퇴비·해초액비 활용 자연그대로농법



완도군은 12일 소안면 감귤농장 61농가가 우수농산물 (GAP) 인증을 받았다.

완도군은 이날 소안 감귤농장에서 신우철 완도군수와 이복선 농업기술센터소장, 감귤연구회 회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GAP 평가회를 가졌다.

소안 감귤은 친환경 인증에 이어 안전하고 우수한 농산물 인증인 GAP을 획득해 완도 감귤 명품화 사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그동안 완도군은 소안 감귤의 맛과 품질을 높이기 위해 감귤연구회를 구성하고 교육과 현장 컨설팅, 벤치마킹 등을 진행해 왔다.

특히 완도 감귤연구회는 화학 비료를 줄이고 유기물 퇴비, EM, 해초액비 등을 활용하는 '자연그대로농법'을 실천하고 있다.

소안 감귤은 풍부한 일조량과 해풍을 맞고 자라 당도와 산도가 높다. 새콤달콤한 맛이 특징이며 저장 기간이 길어 소비자들이 즐겨 찾고 있다.

완도군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감귤의 생육과 품질 향상을 위해 유기질 퇴비 사업, EM 및 해초액비 활용 사업, 선별기 공급 등을 지원했다"며 "맛과 품질 향상을 위한 교육, 시험 및 실증 연구 등을 통해 감귤 명품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완도=김광수기자

책과 함께 즐거로운 거리두기

코로나19로 우리의 일상이 잠시 멈췄습니다.

'책과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의 실천으로
코로나19 극복에 동참해 주세요.





